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최정윤** · 김성훈*** · 최승주****

논문초록

본 연구는 19세 이상 한국인 대표 샘플을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이주민 관련 정책선호를 조사했다. 한국인 조사 참가자는 이주민에 대한 오해의 정도가 크고, 부정적이며 다양했다. 가령, 외국인 이주민 인구를 실제보다 2배 이상, 외국인 범죄율은 실제보다 3배 정도 과대 추정했다.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오류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주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이주민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됨을 또한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인식오류와 정책선호의 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국민 정보전달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사업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에서 기인한 사회갈등을 줄여주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이주민, 인식, 정책선호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15, J61, J71

투고 일자: 2021. 4. 7. 심사 및 수정 일자: 2021. 7. 8. 게재 확정 일자: 2021. 7. 30.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윤리심사를 통과했다 (IRB No. 2006/002-013). 본 논문의 내용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우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여 준 김영식 교수, 이인복 교수, 이종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생, e-mail: ccy94@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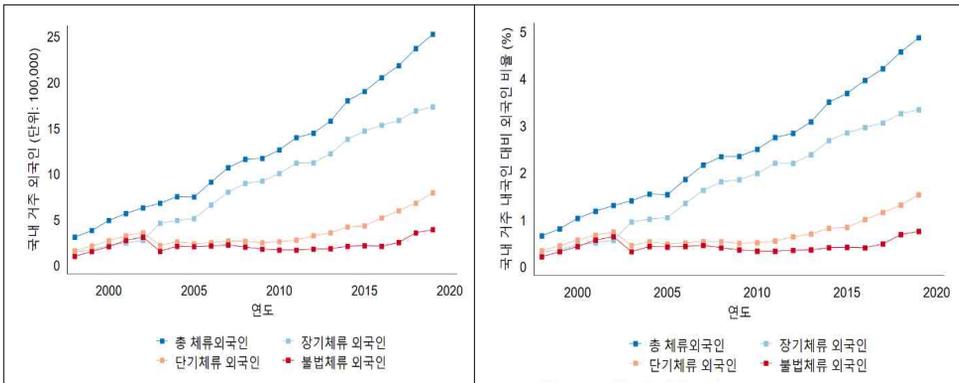
*** 공동저자,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e-mail: seonghoonkim@smu.edu.sg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syngjooc@snu.ac.kr

I. 서론

지난 20년간 국내 외국인 주민 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20).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말 국내 거주 내국인 대비 1% 미만에 불과하던 외국인 비율은 2019년 기준 5%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취업, 유학 등 국내 정주기반을 갖고 생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고령화, 세계화,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 이주민 비율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국내체류외국인 숫자와 비율



출처: 1998-2019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저숙련 이민자의 경우, 원주민(natives)이 기피하는 분야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고숙련 이민자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 및 훈련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유입은 경제적 장점이 있다(West, 2011). 그러나, 서구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의 갈등 사례, 브렉시트(Brexit),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정에서 드러난 외국인 혐오 정서는 이주민 확대가 심각한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민 증가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민자 확대의 경제적인 장점은 살리고 사회갈등 측면의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에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인 미국과 서유럽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의 경우,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대부분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Herda, 2018; Alesina et al., 2018a). 이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

를 줄이는 것이 이주민 확대에 의한 사회갈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본 논문은 19세 이상 한국인 대표 샘플을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참여인원 4,094명)을 실시해서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민(중국동포, 북한이탈주민 포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이주민 정책 관련 선호를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국민정체성 조사 모듈, 한국종합사회조사,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등에서 이주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본 논문에서 실시한 조사처럼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특성별 부정적 인식의 정도와 종류를 보고함으로써, 향후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주민 정책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팀이 작성한 다른 논문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설문실험 방법론을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Choi et al., 2021).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인식오류가 상당히 크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국인 조사 참가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 수가 국내 인구 10,000명당 약 868명(8.68%) 거주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실제 외국인 이주민 수는 국내인구 10,000명당 400명(약 4%)로, 응답자들이 실제 외국인 이주민의 수를 2배 이상 과대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율의 경우, 한국인 응답자들은 외국인 범죄율을 평균 386명(3.86%)으로 추정하였으며 실제 통계량인 130명(1.3%)과 한국인 범죄율 310명(3.1%)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주민 하위집단 간 인식오류를 비교해본 결과,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기반한 오류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두드러졌다.

둘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오류가 이주민 혹은 이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한국 맥락에서 실증분석 했다. 외국인 이민현상에 대한 선호,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동의 비율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오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끝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이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젊은 층, 여성,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를 많이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설문설계 방식과 표본 구성 및 특징을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의 크기를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정적 인식오류와 이주민 및 이민 정책선호와의 음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인식오류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이주민 관련 홍보 정책 시행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인식오류에서 기인하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문헌 고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 및 인식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원주민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Duffy (2014)는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현실을 비교 제시하며,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주민의 이미지가 실제 이주민 특성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영국 외, 여러 서구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Alesina et al., 2018a).

문헌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linder, 2015; Herda, 2010, 2013, 2018). 가령, 이주민의 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Alba, Rumbaut and Marotz, 2000; Sides and Citrin, 2007; Herda, 2010).

경제학 문헌에서 주로 발견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적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외국인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세금부담 증가 및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대체였다. 고소득층은 자신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경제적 약자계층인 이주민 유입을 줄이고 싶어하며(Facchini and Mayda, 2009; Alesina et al., 2018a),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대체를 우려하여 이주민 수의 증가를 줄이고자 한다(Mayda, 2009; Scheve and Slaughter, 2001). 따라서, 이주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예를 들어, 고숙련 노동자인지 저숙련 노동자인지) 내국인의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ainmueller and Hiscox, 2010; Duffy, 2014).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그 오류 정도, 또한 이주민 관련 정책선호를 측정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부의 다문화 수용 정책

및 외국인 이주민 확대 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 이전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 첫째, 정기선 외(2016)는 지난 2003년 이후 국내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약간 긍정적인 편에서 현재는 유보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염려가 조금씩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했다. 국내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에서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외국 이주민과의 단순 접촉 경험은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나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하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시장에서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기존 국내문헌 대비,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오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이주민 관련 정책선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Ⅲ. 연구 방법

1. 설문 설계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를 계량화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6개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본 인적 특성 모듈에서는 응답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삶의 만족도, 혼인상태, 자녀 수, 경제활동상태, 개인소득, 가구소득 정보를 수집했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이주민과의 교류 경험과 관계, 교류 빈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외국인 인식 모듈에서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외국인 국가건강보험 이용 수준, 외국인 이주민 수, 외국인 범죄율, 외국인 학력 수준, 외국인 월평균 임금, 국제결혼 비율을 조사했다. 또한, 소득격차, 통일에 대한 의견, 국내 자살률과 같은 비 이주민 관련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외국인 이주민 관련 문항의 경우, 실제 통계량 혹은 기존 조사자료에서 도출된 값과 비교를 하여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였다.¹⁾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원, 명)를 사용하여 응답 값이 직관적이고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주민과 대응이 되는 대상인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였기에, 기준점 대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실제 공식 통계치가 존재하는 내용을 응답자에게 익숙한 단위를 이용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 가능하도록 수치화했다.

〈그림 2〉 설문 문항 스크린 캡처

Hankook Research 진행률 34%

문18 2018년 기준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결혼자 10,000쌍(일만쌍) 중 몇 쌍 정도가 될지 응답해주세요.

444 쌍

4.44 % (자동계산)

해당 문항에 답변한 후에는 앞 문항으로 되돌아 갈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답변해주세요.

다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결혼 문항의 경우, 10,000쌍의 신혼부부 중 몇 쌍이 국제 결혼일지 물어보았다. 한국인 원주민의 인식오류가 외국인 이주민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 이슈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상관이 없는 한국인 자살률 인식 문항도 함께 조사했다.

셋째, 정책선호 모듈에서는 근로장려제, 최저임금, 임대주택에 대한 의견 및 정치성향과 같이 일반적인 정책선호를 조사했다. 추가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언론매체(SNS포함)와 미디어 문해능력(media literacy)을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측정했다.

넷째, 실험 모듈은 응답자에게 첫 번째 인식 모듈에서 응답한 질문 중 선별된 다섯 질문(국제결혼 수, 외국인 이주민의 건강보험 혜택, 국내 자살률, 외국인 이주민 수, 외국인 범죄율)을 다시 응답할 기회를 제공하는 설문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듈에 사용된 실험 방법 및 결과는 본 연구의 자매 논문인 Choi et al. (2021)에 서술하였다.²⁾

다섯째, 두 번째 선호 모듈은 이주민 및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선호를 확인

1) 기존 조사자료로는 이민자 체류 및 실태조사(2019),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2016),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9) 등을 사용했다.

2)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독자는 Choi et al. (2021)를 참고하길 바란다.

하기 위해 배치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국제결혼에 대한 의견, 외국인 가사도우미 합법화 관련 의견, 외국인 유형별 선호 정도, 외국인 입국 정책선호 정도, 이민자 증가시 부작용 관련 의견, 인구고령화 대책으로서 외국인 이주민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기부금 모듈에서는 응답자의 이타적 행동(altruistic behavior)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학 문헌의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적용했다. 응답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에게 5만 원을 제공하는 당첨 이벤트를 공지한 후, 만약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인 5만 원을 세 NGO 단체(국제기아 대책기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남북하나재단)에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 질문했다. 기부금에 대한 분석 결과는 Choi et al. (2021)를 참고하길 바란다.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설문 참가자들이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문의 내용이 길고 복잡할수록 설문참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에, 부주의한 응답을 가려내는 것이 설문조사 응답의 정확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조사에서는 가장 복잡한 내용인 이주민 인식 모듈의 시작과 끝에 집중도 확인 문항을 하나씩 배치하였다. 이 문항은 응답자에게 특정 보기를 선택하라고 지시하는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³⁾ 이 두 문제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한 응답자는 부주의 응답자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참가자 4,094명 중, 한 문제 이상 통과하지 못한 109명(2.7%)은 분석에서 배제했다. 둘째, 설문 시작 전 응답을 부주의하게 할 시 무작위 1%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너스(추가 사례비 50,000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동의서에 언급하여, 이 조건을 동의한 응답자만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표본 구성 및 특성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상 한국인 성인남녀 4,09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시도 단위), 학력을 전체 모집단(우리나라 성인 인구)에 맞추어 층화추출하였다. 본 설문에서 응

3) 첫 번째 집중도 확인 문항에서는 응답자에게 국내 주요 도시들이 적혀 있는 다섯 보기 중 '서울'이라고 적혀있는 답을 선택하도록 지시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국가명이 적혀 있는 다섯 보기 중 '베트남'이라고 적혀있는 답을 선택하도록 지시했다.

답자 평균 연령은 47.2세, 남성의 비율은 약 50%이다. 응답자 중 20%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48%는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다. 전체 응답자의 62%는 기혼자이고, 평균 자녀 수는 1.27명이다. 전체 표본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51%, 자영업자의 비율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표본의 52%이다. 외국인 이주민 지인(知人)이 있는 사람 비율은 42%이고, 그중 주 1회 이상 대면 만남, 전화, 문자 등의 교류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24%이다.

설문조사 자료가 한국 성인 인구의 대표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1>의 1열에서는 한국리서치에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에 사용한 모집단, 2열에서는 본 조사자료의 표본, 3열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2019년도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1열에서는 표본층화추출에 사용한 모집단 특성만을 보고하였다. 나이, 성별, 거주지역, 기혼자, 자녀 수, 임금노동자 비율,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이상 비율 등 대부분의 특성에서 본 조사자료와 한국리서치 패널 모집단, 한국노동패널자료가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4,000여 명의 샘플을 활용해서 분석한 본 논문의 결과를 성인 한국인 원주민이 갖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정책선호로 확대해석(extrapolate)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표

변수	(1)	(2)	(3)
	한국리서치 모집단	본 논문 설문샘플	2019 노동패널 샘플
나이	48.73	47.3 (14.9)	50.0 (17.9)
남성	0.50	0.49 (0.50)	0.49 (0.50)
서울거주자	0.19	0.20 (0.40)	0.23 (0.42)
전문대 졸업 이상	0.45	0.48 (0.50)	0.52 (0.50)
기혼자	NA	0.62 (0.48)	0.59 (0.49)
자녀 수	NA	1.27 (1.07)	1.22 (1.42)
임금노동자	NA	0.51 (0.50)	0.43 (0.49)
자영업자	NA	0.10 (0.30)	0.03 (0.18)
가계소득(월평균 소득400만 원 이상)	NA	0.52 (0.50)	0.49 (0.50)
이민자와의 접촉 경험 유무	NA	0.42 (0.49)	NA
이민자와의 접촉 빈도 (이주민과 교류 경험 있는 사람 중 주 1회 이상 교류)	NA	0.24 (0.43)	NA
관측치 수	43,526,824	3,985	11,188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이다.

IV.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선호

제IV장에서는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관련 정책선호를 분석한다. 1절에서 설문참여자의 응답과 실제 통계량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를 측정한다. 특히, 인식오류 정도가 큰 집단의 인구 및 경제사회적 특징을 정리해서, 향후 외국인 이주민 정책 설계 시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이주민 관련 정책선호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1.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내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외국인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Alba, Rumbaut and Marotz, 2000; Sides and Citrin, 2007; Herda, 2010)에서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이주민의 수와 실제 통계상의 이주민의 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주민 비율의 증가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국가 내 소속 인구집단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위협 혹은 공공서비스 혜택 등 사회적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Alba et al., 2005). 따라서, 측정된 이주민 비율 혹은 인구규모에 대한 인식오류 값을 개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선택하였다. 나아가, 인식오류 지표를 이용해 검증해 보았을 때, 이주민의 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가진 응답자가 이민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둘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측정방식은 이주민의 수에 대한 오류를 측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제, 사회적 인식오류를 측정하여 정책선호와 연결하여 확장 연구되고 있다(Alesina et al., 2018a; Herda, 2018). 이 절에서는 한국 맥락에 맞는 인식모듈 문항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를 측정할 결과를 제시한다.

(1)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의 오류정도 및 방향성

본 연구진은 여러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실 인식의 오류를 수치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수는 총 네 가지(국제결혼 수, 이주민의 건강보험 혜택, 이주민의 수, 이주민 범죄율)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했다. 먼저 국제결혼 비율과 이주민의 수를 통해서는 국내 외국인 인구 규모를 한국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혜택 수급액 질문을 통해서는 외국인 이주민 증가의 비용 측면에서의 한국인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범죄율 질문을 통해서는 이민 증가 시 한국인 원주민이 받게 될 직접적 위협이자 개인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이주민 인구 규모 혹은 다른 측면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은 잘못된 편견 혹은 공포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 혹은 교류 기회의 부재에 의해서 기인할 수도 있다.

〈표 2〉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응답자 인식과 실제 통계 간 차이를 보여준다. 국제결혼 비율 문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에서 한국인 원주민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과대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측정한 이주민 관련 인식오류와 이민 정책선호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았다.

〈표 2〉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의 오류 정도 및 방향성

	평균 응답	≧	실제 통계량	차이
국제 결혼 쌍 수(10,000 건 당)	898.6 (1206.9)	<	990	-91.4 (-9.23%)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00원 보험료 대비 혜택(단위: 원)	11,587.4 (7220.6)	>	7,700	3,887.4 (50.5%)
국내 거주 10,000명당 외국인 이주민 수	875.5 (1252.2)	>	400	475.5 (118.9%)
외국인 범죄율(10,000명당)	384.4 (754.0)	>	130	254.4 (195.7%)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인식오류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에 비해 언론 노출 빈도가 더 높은 편이었으며,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납부액 대비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보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본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는 외국인 이주민이 보험료를 10,000원 낼 때 그보다 많은 11,576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설문 문항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보험 납부액 10,000원 대비 한국인 평균 국민건강보험 이용금액인 10,300원보다 높고, 외국인 실제 국민건강보험 이용금액 약 7,700원 대비 약 50%가량 많은 액수이다. 즉,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 보험금 납부액을 더 많이 내기에, 내국인이 사실상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원주민의 인식은 사실과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 수의 경우, 한국인 조사 참가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 수가 국내 인구 10,000명당 약 876명(8.76%) 거주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이주민 수는 국내인구 10,000명당 400명(4%)으로, 실제 외국인 이주민의 수를 2배 이상 과대 추정했다.⁴⁾ 이 경향은 서구 6개국에서 국내 거주 이주민을 2배 이상 과대 추정하는 경향(Alesina et al., 2018)과 비슷하다. 범죄율의 경우, 응답자들이 일반적인 범죄율 통계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점으로 한국인 범죄율이 10,000명당 310명(약 3.10%)이라는 정보를 같이 제시하면서 외국인 범죄율 추정치를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외국인 범죄율을 평균 384명(3.84%)으로 추정하며 실제 통계량인 130명(약 1.3%)과 한국인 범죄율 310명(약 3.1%)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의 오류 정도 및 방향성: 하위집단 비교

이주민과 그 하위집단인 중국동포,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한국인이 특정 이주민 집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외국인 이주민이라는 범주는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인종 등 여러 특성을 가진 개인이 소속된 혼합집단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Hainmueller and Hiscox(2010)과 Duffy(2014)에서는 내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이주민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따라 상이함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 이민자 집단 중 가장 큰 규모인 중국동포(조선족)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4) 외국인 이주민 비율 과대 추정은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외국인 이주민으로 착각한 데서 기인할 수 있지만, <그림 1>에서 보듯이 단기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인구 대비 작은 편이다.

중국동포의 경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본 설문에서 확인하였을 때 다른 이주민 하위집단에 비해 교류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외국인 이주민과 중국동포를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회갈등 예방과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 원주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래 <표 3>은 이주민 인구집단별 한국인의 인식오류를 표로 요약한 것이다.

<표 3>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현실

	이주민 수 (명, 국내거주인구 10,000명당)		이주민 범죄율 (명, 외국인 10,000명당)		고소득 이주민 비율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고학력 이주민 비율 (%, 전문대 졸업 이상)	
	평균값	실제값	평균값	실제값	평균값	실제값	평균값	실제값
외국인이민자	875.5	400	384.4	130	11.0	16.3	28.3	27.1
중국동포	1,377.0	102.9	584.1	.	9.7	.	17.7	24.1
북한이탈주민	457.7	6.5	169.8	.	7.9	.	19.7	29.2

주: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은 정확한 통계값을 찾을 수 없어 비워두었다. 고학력 이주민 비율은 각각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2016)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9)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3>의 1열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모든 이주민 그룹의 인구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주민 전체 집단과 중국동포의 수의 응답을 보면, 중국동포가 이주민 전체 집단의 하위집단임에도 전체 이주민의 수보다 중국동포를 500명(기준 10,000명) (혹은 5%) 정도로 비논리적으로 과대 추정하고 있다.

이주민 범죄율의 경우, 중국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에 대한 실제 통계를 찾기 못해 직접 설문응답과 통계량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설문문항에서 제시했던 내국인 범죄율 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내국인이 인식하는 외국인 이주민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 대비 얼마나 큰지 가늠해볼 수 있다. 내국인의 범죄율이 10,000명당 310명(약 3.10%) 정도라는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전반적으로 과대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 중 중국동포는 이보다 2배에 가까우리라 추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들은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범죄율이 높으리라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두 배 정도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설문참여자도 직접 교류 경험이 많지 않은 점을 미

루어, 간접경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령 중국동포에 대한 범죄 사례 기사 보도 및 영화 범죄도시, 황해 등, 미디어에서 폭력적으로 묘사되는 중국동포 인물은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의 3, 4열은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3열에서는 응답자들의 이주민 임금수준 추정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전체 이민자 중 약 11%가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주민체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중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이보다 높은 16.3%이었다.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임금의 경우 선행 통계와 비교 가능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민자 전체 집단보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비율을 과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외국인 학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이전 설문조사인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2016)⁵⁾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9)에서 조사한 학력 수준보다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낮게 추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이질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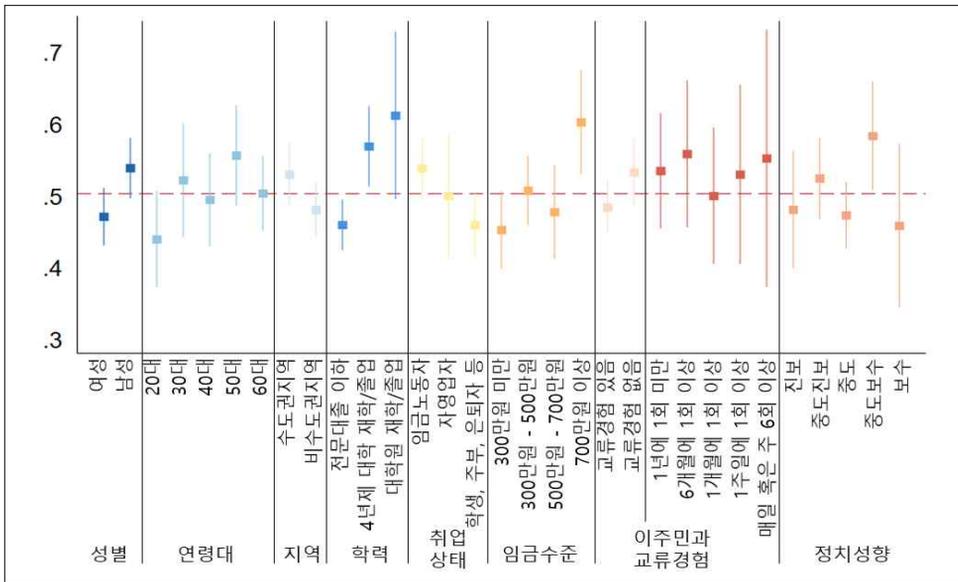
이 조에서는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를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림 3〉~〈그림 6〉은 응답자의 사실 인식오류의 정도 및 방향을 확인하는 그래프로, 각 집단의 평균과 신뢰구간을 표시하여 집단별 패턴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그래프에서 사용한 값은 응답 값과 통겅값의 차이를 통겅값으로 나눈 것으로, 응답자의 오류가 정답 값 대비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표준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하 표준화된 인식오류(standardized misperception) 변수를 “인식오류”라고 부르겠다. 부호는 응답자의 추정 방향을 의미하며, 차이가 양의 값일 경우 과대 추정, 음의 값은 과소 추정을 의미한다. 각 집단 간의 인식오류 차이는 하위 집단 중 두 쌍을 뽑아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했다. 아래의 이질성 분석 시행 결과,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언제나 큰 오류를 갖고 있기보다는 주어지는 주제에 따라 오류의 크기 및 방향이 달라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3〉~〈그림 6〉은 집단별 인식오류와 그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응답의

5)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가장 최신 버전의 설문이다.

금층은 저소득, 저숙련 노동자 증가에 따른 복지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기에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선행문헌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Facchini and Mayda, 2009; Alesina et al., 201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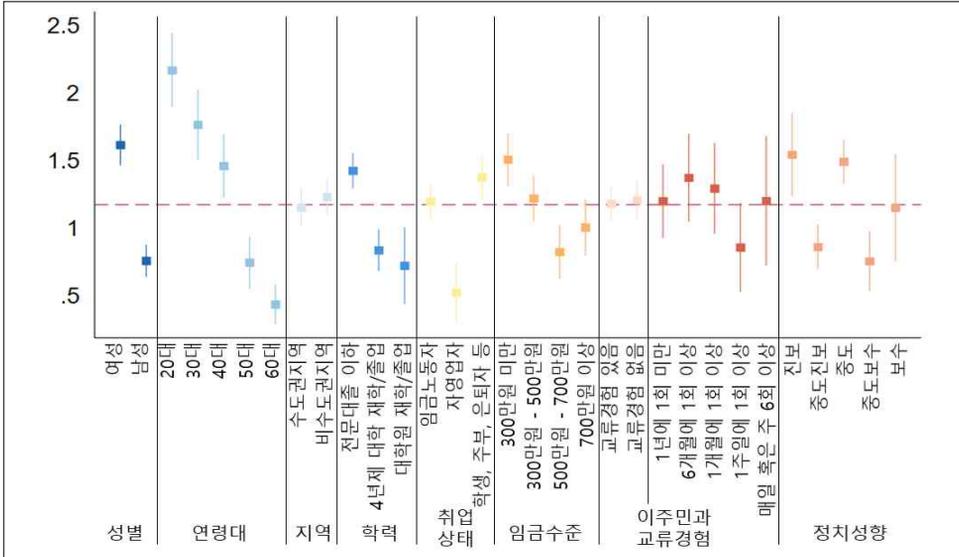
〈그림 4〉 사실 인식의 오류의 정도 및 방향성: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보험료 10,000원 대비 혜택



주: 전체 표본의 평균값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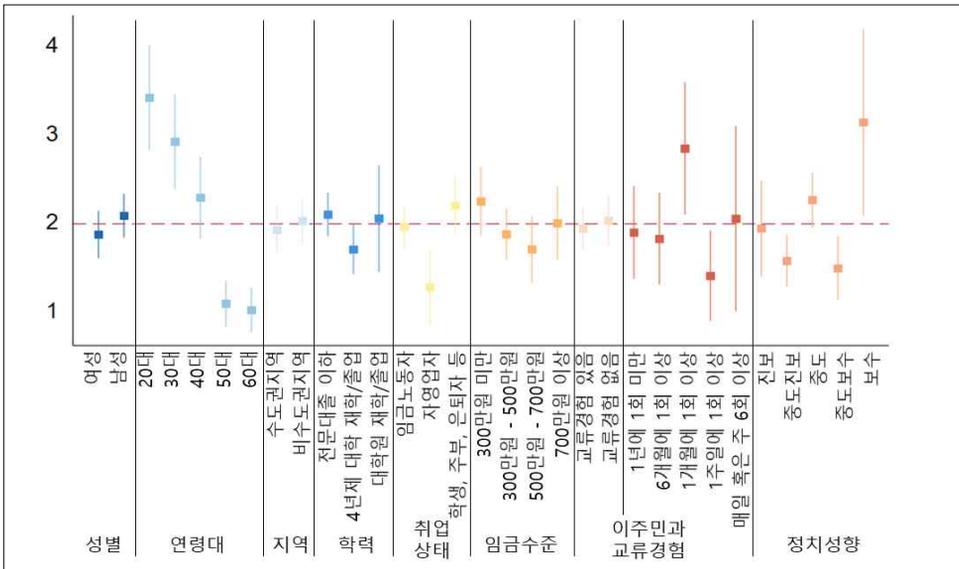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이듯, 전체 응답자는 외국인 이주민 수 문항에서 실제 통계 대비 119% 과대 추정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 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은 1) 남성 대비 여성 ($p < 0.001$), 2) 30대 미만 ($p = 0.001$ (40대 대비), $p < 0.001$ (50대 이상 대비)) 및 40대 ($p < 0.001$ (50대 이상 대비)), 3) 전문대 졸업 미만의 저학력층 ($p < 0.001$ (대학교 재학/졸업 대비), $p < 0.001$ (대학원 재학/졸업 대비)) 4) 임금고용자 대비 학생, 주부, 은퇴자 등 ($p < 0.001$), 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p = 0.029$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대비), $p < 0.001$ (500만 원 이상 대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p = 0.008$ (500만 원 이상 대비)) 저소득층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5〉 사실 인식의 오류의 정도 및 방향성: 외국인 이주민의 수



주: 전체 표본의 평균값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6〉 사실 인식의 오류의 정도 및 방향성: 외국인 범죄율



주: 전체 표본의 평균값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6〉에서 보이듯, 전체 응답자는 외국인 범죄율 문항에서 실제 통계 대비 196% 과대 추정하는 오류를 갖고 있었다. 두 그룹씩 짝지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

하였을 때, 외국인 범죄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1) 30대 미만($p=0.006$ (40대 대비), $p<0.001$ (50대 이상 대비)), 40대($p<0.001$ (50대 이상 대비)) 2) 대학교 재학/졸업 대비 전문대 졸업 미만 ($p=0.06$)의 저학력층 3) 임금고용자 대비 학생, 주부, 은퇴자 등($p=0.036$)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이주인에 대한 인식과 이주민 정책선호의 연관성

본 절에서는 서구권 선행논문에서 보였던 외국인 이주인에 대한 인식오류와 이주민 정책선호의 상관관계가 한국에서도 관찰 가능한지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 응답자를 인식오류에 따라 총 세 그룹, 과대 추정 집단, 과소 추정 집단, 그리고 정당인정 집단으로 나누어서 과대 추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이주민 정책에 부정적 인지 비교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 Over_i + \beta_2 * Under_i + \beta_3 * X_i + \epsilon_i \quad (1)$$

위 회귀식은 각 응답자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선호를 표현한 종속변수를 과대 추정, 과소 추정 변수로 추정된 것이다. 회귀식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이주민 정책선호를 반영하는 다음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1) 외국인 및 이주민 확대 선호 여부, 2) 외국인 관련 정책선호 여부, 3) 이주인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설명변수인 $Over_i$ 와 $Under_i$ 는 각각 응답자가 외국인 이주민 특성을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하는지 측정한 더미변수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이주인에 대한 인식오류 인덱스(Index)는 이주민과 관련된 네 인식오류를 정규분포로 표준화한 값(normalized value)을 단순 평균하였으며, 인식오류 인덱스 변수가 0.25보다 크다면 과대 추정으로, -0.25보다 작으면 과소 추정으로 할당하였다.⁶⁾ 즉, 응답자가 실제 통계량 대비 1.25배 초과 값을 응답한 응답자를 과대 추정(2,035명, 51.1%) 응답

6) 국제결혼 비율 및 이주민 수에 대한 과대평가는 이주민 인구에 대한 잘못된 추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해당 집단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과대 추정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외국인 범죄율 및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과대 추정이 이주민 집단이 이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듯이, 위의 이주민 인구에 대한 과대 추정 역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인식변수 각각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해당 변수들을 인덱스화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도, 논의의 간결함과 검정력(statistical power) 증가라는 장점이 있다.

자로 할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실제 통계량 대비 0.75배 미만의 값을 응답하고 있는 응답자를 과소 추정(1,098명, 27.6%) 응답자로 할당하였다.⁷⁾ 가령, 실제 이주민 인구가 국내 인구 10,000명 중 500명이었을 때, 응답자의 응답이 625명을 초과하면, 과대 추정, 375명 미만이면 과소 추정으로 분류된다. 만약 이주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미변수 $Over_i$ 과 $Under_i$ 의 계수 값은 과대 추정 오류 혹은 과소 추정 오류로 인한 이민 관련 정책선택의 변화분을 설명하는 계수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인덱스 변수 대신 각 인식 문항별로 구성한 분석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X_i 는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나이, 남성 더미, 서울 거주자 더미, 기혼자 더미, 자녀 수를 사용하였고, 추가로 가구소득과 고용상태, 학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령, 응답자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선호를 형성한 이후에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정보를 의식적으로 왜곡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와 이주민 정책선택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자 한다.

(1) 외국인 및 이민현상에 대한 선호와의 연관성

먼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보기에 앞서, 한국인들이 외국인 및 이민현상에 대한 선호가 인식 왜곡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 의견 비율과 외국인 유형별 선호를 분석했다.

〈표 4〉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민 인식 관련 과대 추정 혹은 과소 추정 등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국제결혼에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 (1), (2)에 의하면, 통제 여부에 상관없이 외국인 이주민에 관련 통계 과대 추정은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선호에 1% 유의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7) 인식오류 인덱스값은 (응답 값 - 통계량)/통계량으로 계산되므로, $(1.25 * \text{통계량} - \text{통계량}) / \text{통계량} = 0.25$ 이다. 즉, 응답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대 추정 기준은 통계량 대비 1.25배이고 인덱스값 기준으로 계산한 과대 추정 기준은 0.25배이다. 부록 C2-C3에서는 과소 추정 및 과대 추정 범위의 컷오프 기준인 0.75-1.25배에 대한 강건성 검정(Robustness Check)으로 0.8-1.2배, 0.7-1.3배로 컷오프 기준을 바꾸어 검정하였고, 결과는 유사하였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계수를 동일성 검정한 결과, 과대 추정한 응답자는 과소 추정한 응답자에 비해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긍정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사람의 비율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적었다(p 값=0.046). 부록 C.1의 각 문항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일하게 외국인 범죄율 과대 추정 여부가 국제결혼에 대해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변수명	(1)	(2)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과대 추정	-0.067*** (0.020)	-0.063*** (0.020)
과소 추정	-0.030 (0.023)	-0.024 (0.023)
관측값	3,985	3,985
R-squared	0.018	0.025
통제변수 1	O	O
통제변수 2	X	O
p값	0.046	0.043
평균	0.400	0.40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표 5〉는 각 외국인의 특성에 따른 선호도를 과대 추정 더미변수와 과소 추정 더미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대 추정 혹은 과소 추정 여부에 상관없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제, 교육 및 이민자 교류를 통제한 이후에는 과대 추정 인식오류만이 의미 있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호에서만 1%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 과대 추정과 과소 추정 더미변수의 계수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p 값=0.02)를 보이는 항목은 저숙련 생산가능직 외국인 증가추세에 대한 선호문항이었다. 부록 C.1의 각 문항별 분석에 의하면, 국제결혼 비율의 과소 추정은 고숙련 전문기술

직 증가추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인 인구에 대한 과대 추정은 고속런 전문기술직 증가추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과대 추정은 통제 후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의 비율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식오류의 종류별 효과가 다르지만, 인식 변수에 대한 과소 추정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과대 추정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덱스변수와 일관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외국인 특성별 선호

변수명	(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2) 저숙련 생산가능직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3) 저숙련 생산가능직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4) 고속런 전문기술직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5) 고속런 전문기술직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6) 고속런 전문기술직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과대 추정	-0.031* (0.018)	-0.028 (0.018)	-0.069*** (0.017)	-0.067*** (0.017)	-0.072*** (0.020)	-0.062*** (0.020)
과소 추정	-0.021 (0.021)	-0.016 (0.021)	-0.033* (0.019)	-0.031 (0.019)	-0.042* (0.023)	-0.033 (0.023)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39	0.044	0.014	0.020	0.014	0.033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582	0.502	0.020	0.021	0.111	0.126
평균	0.282	0.282	0.203	0.203	0.519	0.519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2)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와의 연관성

〈표 6〉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에 비해 외국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교육 및 외국인 이주민과의 교류 경험을 통제하기 전이나 후 모두 과대 추정 더미변수의 계수 값만이 이

주민 관련 정책선호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인 효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대해 더 두드러졌으며, 과대 추정과 과소 추정 더미변수의 계수 간의 차이 역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했다(통제 후 p 값=0.041). 부록 C.1에 의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및 이주민 인구 규모 과대 추정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

변수명	(1)	(2)	(3)	(4)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과대 추정	-0.038*	-0.033*	-0.059***	-0.050***
	(0.020)	(0.020)	(0.020)	(0.020)
과소 추정	-0.022	-0.016	-0.022	-0.013
	(0.022)	(0.022)	(0.022)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67	0.080	0.018	0.039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378	0.341	0.048	0.041
평균	0.369	0.369	0.351	0.351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표 7〉에서는 외국인 입국 검문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 확인하였다. 현행 시행 정책인 얼굴 및 지문정보는 87.7%의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현재 사생활 보호 등 민감한 문제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 수집에도 67.7%라는 매우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경제, 교육 및 외국인 교류 여부 통제와 상관 없이, 외국인에 대한 과대 추정 인식 오류는 입국 검문 강화정책에 적어도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정책 모두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더미변수의 계수 값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

한 차이(통제 후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 정책 p 값=0.002, 통제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수집 정책 p 값 = 0.011)를 보였다. 개인의 안전과 관련된 선호이니만큼 부록 C.1에서 각 인식 문항별로 분석해보았을 때, 외국인 범죄율에 대한 과대 추정이 두 검문 강화 정책선호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추가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과대 추정은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7〉 외국인 입국 검문 강화 정책에 대한 선호

변수명	(1)	(2)	(3)	(4)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입국시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입국시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28** (0.014)	0.031** (0.014)	0.079*** (0.020)	0.078*** (0.020)
과소 추정	-0.013 (0.015)	-0.009 (0.015)	0.034 (0.022)	0.033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1	0.016	0.031	0.037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 값	0.002	0.002	0.012	0.011
평균	0.877	0.877	0.647	0.647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3)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동의 비율과의 연관성

〈표 8〉은 외국인 이주민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통계량을 과대 추정한 응답자는 부족한 직종의 인력을 채운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5% 유의수준에서 더 부정적이었다. 과

소 추정 더미변수는 설명변수를 추가로 통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대, 과소 추정한 응답자 모두 동의 비율이 낮았으나, 설명변수를 추가로 통제한 경우,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이민자의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

변수명	(1)	(2)	(3)	(4)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46** (0.018)	-0.039** (0.018)	-0.035* (0.020)	-0.026 (0.020)
과소 추정	-0.002 (0.020)	0.003 (0.020)	-0.045** (0.023)	-0.037 (0.023)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9	0.021	0.023	0.038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011	0.017	0.594	0.573
평균	0.712	0.712	0.448	0.448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표 9〉에서는 이민의 세 부작용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비율을 회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대 추정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7-11%p 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대 추정 더미변수와 과소 추정 더미변수의 계수 차이를 동일성 검정한 p값(<0.001)이 매우 낮아, 1% 유의수준에서도 기각할 수 있었다. 이민에 대한 인식을 과대 추정한 응답자들은 아래 이민의 부작용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경제, 교육 및 이주민과의 교류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했다. 부록 C.1에서 각 인식 변수별로 확인해 보았을 때, 과소 추정(국제결혼 비율,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한 응답자는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

이 낮았으며, 반대로 과대 추정(외국인 인구 규모, 외국인 범죄율) 한 응답자는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9〉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

변수명	(1)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2)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3)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4) ‘이민자 증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5)	(6)
과대 추정	0.069*** (0.019)	0.070*** (0.019)	0.113*** (0.020)	0.109*** (0.020)	0.081*** (0.020)	0.085*** (0.020)
과소 추정	0.003 (0.021)	0.003 (0.021)	0.042* (0.023)	0.038* (0.023)	-0.018 (0.022)	-0.015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6	0.018	0.013	0.025	0.020	0.024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평균	0.719	0.719	0.489	0.489	0.660	0.66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3. 인식오류 결정요인 분석

앞의 두 장에서 본 연구진은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가 존재함을 보이고, 그 중 부정적인 인식오류는 이주민 혹은 이민정책에 대한 선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주민 관련 정책선호 형성 메커니즘 중 하나인 인식오류를 국내 맥락에 맞추어 설계하였으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이민 관련 정책선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민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식오류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 차례의 설문조사로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엄밀하게 확인하기 어렵기에, 앞서 인식오류와 정책선호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이용해, 아래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 X_i + \epsilon_i \quad (2)$$

종속변수 Y_i 는 인식오류 인덱스 변수를, 독립변수 X_i 는 총 두 종류로 1) 인구사회학적 변수(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 2) 이와 더불어 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여부(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민자 교류 경험)를 사용하였다.

<표 10>의 첫 번째 열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인식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높은 연령, 남성 여부, 기혼 여부는 인식오류 정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녀수와 인식오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첫 번째 열의 서울 거주 여부를 제외한 모든 계수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하지만, 두 번째 열에서 교육, 경제, 이주민과의 교류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기혼 여부는 다른 효과에 상쇄되어 인식오류를 줄이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고 연령층, 남성, 자녀 수 변수는 여전히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고소득층과 자영업자, 4년제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인식오류를 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이주인에 대한 인식오류가 더 큰 인구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및 그들의 특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갈등 및 비합리적인 이주민 정책 결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위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인식오류의 지속원인이다. 가령 본 설문지의 실험모듈에서 응답자에게 이미 응답한 네 문항을 수정할 기회를 주었을 때, 단 한 번도 수정하지 않은 사람 중 73.45% (1,663명)는 기존 응답 값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한 신념 혹은 편견과, 정확한 정보를 얻을 기회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이유로 본인의 인식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정부 혹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주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례로, 한 실험에서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 가짜뉴스를 정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정치성향 및 교육수준 등 특정 하위 집단의 실험참가자는 오히려 주어진 정보와 반대되는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였다(Nyhan et al., 2013). 또한 본 논

문에서 인식오류로 사용하였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관련 부정적 기사는 후에 정정 기사가 올라왔음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으며, 설문에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인식오류 결정요인

변수명	인식오류 인덱스 (Avg.)	
	(1)	(2)
나이	-0.0312*** (0.003)	-0.034*** (0.003)
남성	-0.210*** (0.061)	-0.156** (0.065)
서울거주자	0.0276 (0.080)	0.029 (0.080)
기혼	-0.217** (0.084)	-0.134 (0.087)
자녀 수	0.097** (0.038)	0.099*** (0.038)
가구소득		
300만 원이상 500만 원미만		-0.153* (0.085)
500만 원이상 700만 원미만		-0.330*** (0.097)
700만 원이상		-0.184* (0.101)
고용상태		
임금노동자		-0.085 (0.074)
자영업자		-0.211** (0.097)
교육수준		
4년제 대학 재학/ 졸업		-0.315*** (0.066)
대학원 재학/ 졸업		-0.019 (0.110)
이주민과 교류 경험		0.080 (0.064)
관측값	3,985	3,985
R-squared	0.056	0.066
종속변수 평균	0.890	0.89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한편, 개인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통해 내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특히,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가 큰 상황에서 그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Choi et al., 2021). 이를 위해, 정부의 이주민 관련 홍보 정책 강화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인식오류 모니터링은 인식오류에서 기인한 부정적 태도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이주민 정책 관련 선호를 조사하였다. 외국인 이주민 확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자, 노동력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이지만, 이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및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해당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이주민 확대 정책에 대한 선호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실증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가 상당히 크고 부정적임을 발견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국동포와의 교류경험이 많은 편이지만,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오류의 정도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컸다. 둘째로, 회귀분석에서 확인한 결과 외국인 이주민 정책선호 및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미루어,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외국인 이주민 관련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인식오류가 나이, 성별, 가구소득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기인함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정부의 이주민 관련 홍보 정책 시행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인식오류에서 기인하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통계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정책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더 자세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 정부 정책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선호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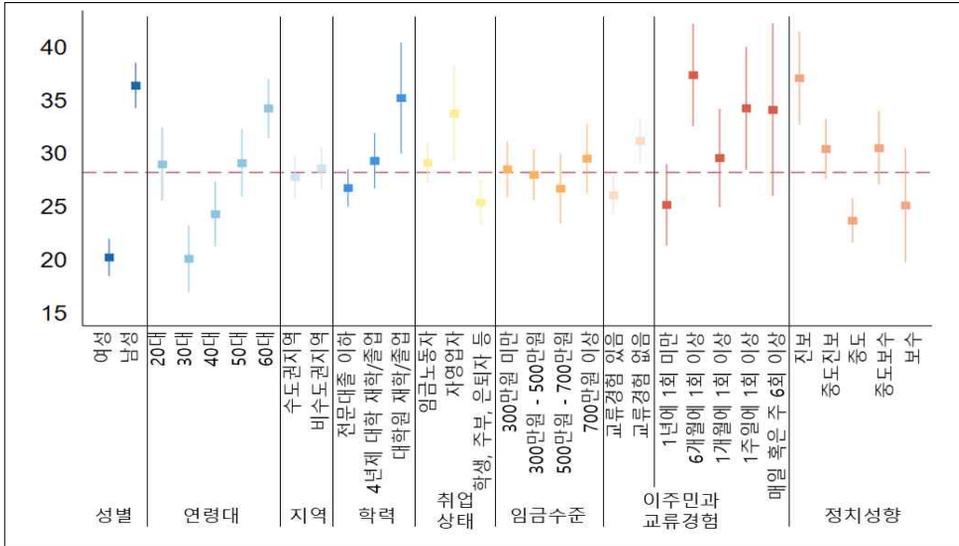
1.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19.
2.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 접속일자: 2021-02-19.
3. 안상수 외,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4. 오정은 외,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 재외동포재단, 2016.
5. 정기선 · 박성일 · 박미화 · 현리정 · IOM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 및 이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 분석,” 2016-2, IOM이민정책연구원, 2016.
6.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2019.
7. Alba, Richard, Ruben G. Rumbaut, and Karen Marotz, “A Distorted Nation: Perceptions of Racial/ethnic Group Size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other Minorities,” *Social Forces*, Vol. 84, No. 2, 2005, pp.901-919.
8. Alesina, Alberto, Armando Miano, and Stefanie Stantcheva, “Immigration and Redistribution,” No. w2473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8.
9. Blinder, Scott, “Imagined Immigration: The Impact of Different Meanings of ‘Immigrants’ in Public Opinion and Policy Debates in Britain,” *Political Studies*, Vol. 63, No. 1, 2015, pp.80-100.
10. Choi, S., Choi, C., and Kim, S., “Tackling Misperceptions about Immigrants with Fact-checking Interventions: A Randomized Survey Experiment,” Working Paper, 2021.
11. Duffy, Bobby, and Tom Frere-Smith, “Perceptions and Reality,” Public Attitudes to Immigration, Ipsos 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 2014.
12. Facchini, Giovanni, and Anna Maria Mayda, “Does the Welfare State A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vidence Across Coun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1, No. 2, 2009, pp.295-314.
13. Hainmue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Attitudes Toward Highly Skilled and Low-skilled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10, pp.61-84.
14. Herda, Daniel, “How Many Immigrants? Foreign-born Population Innumeracy in Europ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4, No. 4, 2010, pp.674-695.
15. _____, “Too Many Immigrants? Examining Alternative forms of Immigrant Population Innumeracy,”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56, No. 2, 2013, pp:213-240.
16. _____, “Comparing Ignorance: Imagined Immigration and the Exclusion of Migrants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Societies Without Borders*, Vol. 12, No. 2, 2018, pp: 5.
17. Facchini, Giovanni, and Anna Maria Mayda, “Does the Welfare State A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vidence Across Coun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1, No. 2, 2009, pp.295-314.
18. Nyhan, B., J. Reifer, and P. A. Ubel, “The Hazards of Correcting Myths about Health Care Reform,” *Medical Care*, Vol. 51, No. 2, 2013, pp.127-132.

19. Scheve, Kenneth F., and Matthew J. Slaughter,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3, No. 1, 2001, pp. 133-145.
20. Sides, John, and Jack Citrin, "European Opinion about Immigration: The Role of Identities, Interests and Inform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7, pp. 477-504.
21. West, Darrell M., "Brain Gain: Rethinking US Immigratio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0.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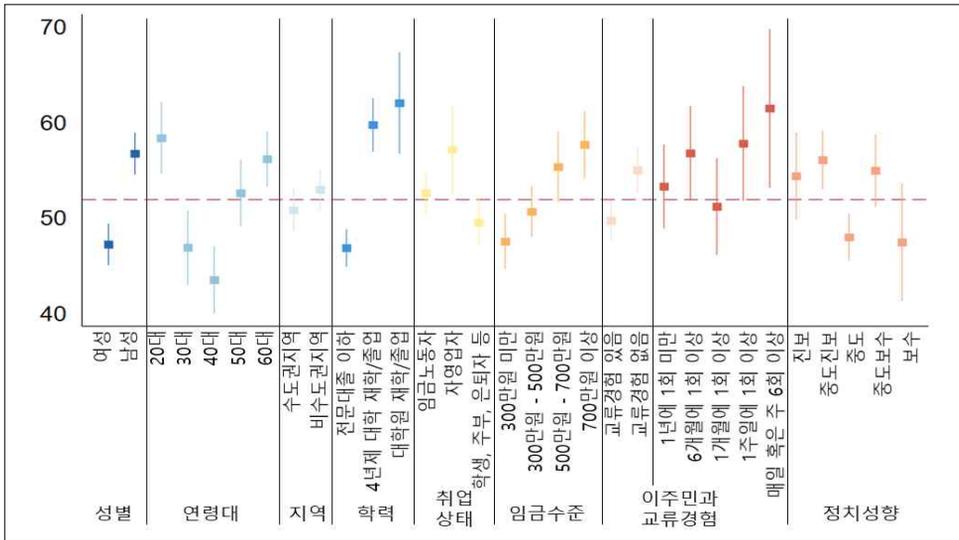
A. 이질성 분석: 이민 정책선호 변수

〈부록 그림 5〉 이주민 증가추세에 대한 동의 비율 - 결혼이주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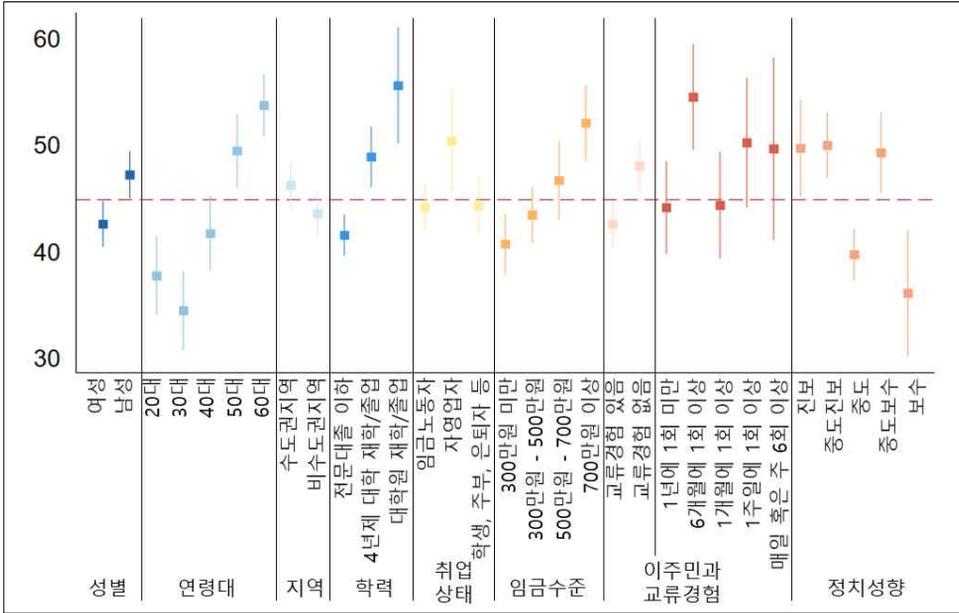
주: 전체 표본의 평균값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부록 그림 6〉 이주민 증가추세에 대한 동의 비율 - 고소득 전문기술직 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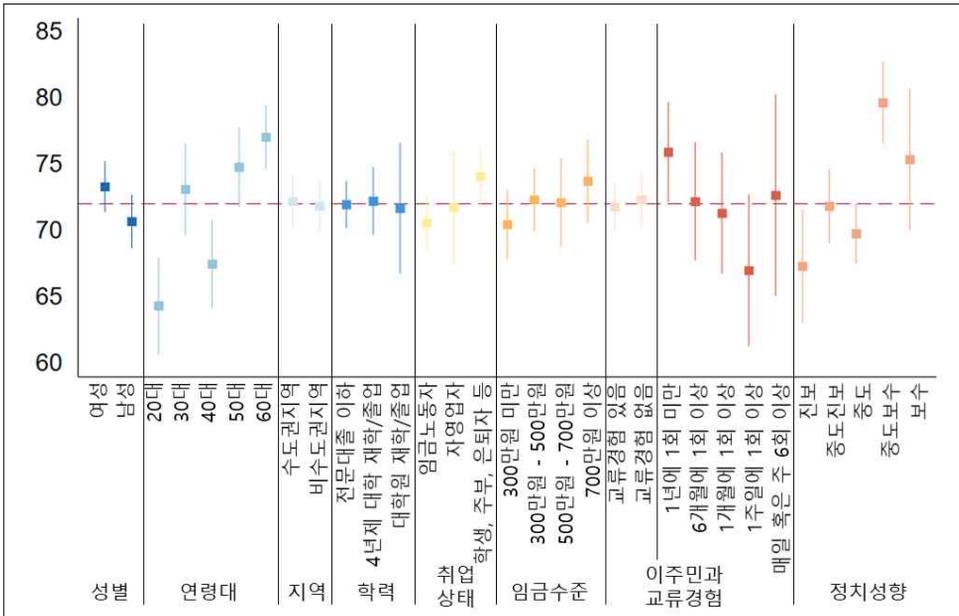
주: 전체 표본의 평균값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부록 그림 9〉 이주민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 인구감소 해결책



주: 전체 표본의 평균값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부록 그림 10〉 이질성 분석: 이민의 부작용 - 사회갈등 심화



주: 전체 표본의 평균값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B.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이주민 정책선호 회귀분석표

B.1 각 인식 문항별 회귀분석표

1) 국제결혼 비율 인식오류 효과

〈부록 표 1〉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인식오류 변수: 국제결혼 비율)

변수명	(1)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2) 비율
과대 추정	0.007 (0.025)	0.010 (0.025)
과소 추정	-0.003 (0.021)	-0.003 (0.021)
관측값	3,985	3,985
R-squared	0.016	0.022
통제변수 1	O	O
통제변수 2	X	O
p값	0.624	0.503
평균	0.400	0.40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 외국인 특성별 선호(인식오류 변수: 국제결혼 비율)

변수명	(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3) 저숙련 생산가능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4)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5) 고숙련 전문기술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6)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과대 추정	0.002 (0.023)	0.003 (0.023)	-0.005 (0.020)	0.002 (0.020)	0.003 (0.026)	0.012 (0.026)
과소 추정	-0.010 (0.020)	-0.009 (0.020)	0.018 (0.017)	0.017 (0.017)	0.044** (0.022)	0.039*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39	0.044	0.010	0.017	0.013	0.032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501	0.488	0.155	0.277	0.043	0.184
평균	0.282	0.282	0.203	0.203	0.519	0.519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3〉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인식오류 변수: 국제결혼 비율)

변수명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2)	(3)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4)
과대 추정	0.001 (0.024)	0.009 (0.024)	-0.007 (0.024)	0.002 (0.024)
과소 추정	-0.003 (0.021)	-0.006 (0.020)	0.036* (0.021)	0.033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66	0.079	0.017	0.038
통제변수 1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p값	0.803	0.441	0.020	0.098
평균	0.369	0.369	0.351	0.351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4〉 외국인 입국 검문 강화 정책에 대한 선호(인식오류 변수: 국제결혼 비율)

변수명	(1)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2)	(3) 입국시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 동의 비율	(4)
과대 추정	0.002 (0.017)	0.001 (0.017)	0.026 (0.024)	0.023 (0.025)
과소 추정	-0.016 (0.014)	-0.015 (0.014)	-0.011 (0.021)	-0.008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9	0.014	0.028	0.034
통제변수 1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p값	0.193	0.227	0.048	0.096
평균	0.877	0.877	0.647	0.647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5〉 이민자의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인식오류 변수: 국제결혼 비율)

변수명	(1)	(2)	(3)	(4)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17 (0.024)	-0.009 (0.024)	0.010 (0.026)	0.019 (0.026)
과소 추정	-0.018 (0.020)	-0.022 (0.020)	-0.020 (0.022)	-0.024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7	0.020	0.023	0.038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954	0.489	0.126	0.322
평균	0.712	0.712	0.448	0.448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6〉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인식오류 변수: 국제결혼 비율)

변수명	(1)	(2)	(3)	(4)	(5)	(6)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 증가 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15 (0.024)	-0.014 (0.024)	0.028 (0.026)	0.019 (0.026)	-0.002 (0.024)	0.003 (0.024)
과소 추정	-0.002 (0.020)	-0.003 (0.020)	-0.021 (0.022)	-0.017 (0.022)	-0.054*** (0.021)	-0.055*** (0.020)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1	0.013	0.006	0.017	0.014	0.018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482	0.525	0.016	0.073	0.006	0.002
평균	0.719	0.719	0.489	0.489	0.660	0.66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2)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인식오류 효과

〈부록 표 7〉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변수명	(1)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2)
과대 추정	-0.034 (0.030)	-0.031 (0.029)
과소 추정	-0.008 (0.038)	-0.000 (0.038)
관측값	3,985	3,985
R-squared	0.016	0.023
통제변수 1	O	O
통제변수 2	X	O
p값	0.336	0.261
평균	0.400	0.40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8〉 외국인 특성별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변수명	(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2)	(3) 저숙련 생산가능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4)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5) 고숙련 전문기술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6)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과대 추정	-0.012 (0.026)	-0.010 (0.026)	-0.051** (0.026)	-0.049* (0.025)	-0.062** (0.030)	-0.056* (0.030)
과소 추정	-0.013 (0.034)	-0.010 (0.034)	-0.051 (0.032)	-0.047 (0.032)	-0.078** (0.039)	-0.060 (0.039)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39	0.044	0.011	0.017	0.012	0.032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960	0.986	0.997	0.946	0.544	0.869
평균	0.282	0.282	0.203	0.203	0.519	0.519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9〉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변수명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2)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3)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4)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과대 추정	-0.057** (0.029)	-0.053* (0.029)	-0.058** (0.029)	-0.054* (0.029)
과소 추정	-0.038 (0.037)	-0.026 (0.037)	-0.073** (0.037)	-0.057 (0.037)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67	0.080	0.017	0.038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468	0.289	0.567	0.910
평균	0.369	0.369	0.351	0.351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10〉 외국인 입국 검문 강화 정책에 대한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변수명	(1)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2)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3) 입국시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4) 계정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35 (0.021)	0.038* (0.021)	0.004 (0.029)	0.005 (0.029)
과소 추정	-0.023 (0.029)	-0.020 (0.029)	0.010 (0.037)	0.005 (0.037)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1	0.017	0.027	0.033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005	0.006	0.816	0.989
평균	0.877	0.877	0.647	0.647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11〉 이민자의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변수명	(1)	(2)	(3)	(4)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03 (0.027)	0.003 (0.027)	-0.038 (0.030)	-0.033 (0.029)
과소 추정	-0.071** (0.036)	-0.058 (0.036)	-0.040 (0.038)	-0.025 (0.038)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9	0.021	0.022	0.037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010	0.022	0.938	0.773
평균	0.712	0.712	0.448	0.448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12〉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변수명	(1)	(2)	(3)	(4)	(5)	(6)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 증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26 (0.028)	0.029 (0.028)	0.015 (0.030)	0.014 (0.030)	0.014 (0.028)	0.019 (0.029)
과소 추정	-0.073** (0.037)	-0.069* (0.037)	0.051 (0.039)	0.041 (0.039)	-0.066* (0.037)	-0.059 (0.038)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5	0.017	0.005	0.017	0.013	0.017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001	<0.001	0.201	0.339	0.003	0.004
평균	0.719	0.719	0.489	0.489	0.660	0.66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3) 이민자 인구규모 인식오류 효과

〈부록 표 13〉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인구규모)

변수명	(1)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2) 비율
과대 추정	0.003 (0.022)	0.007 (0.022)
과소 추정	0.014 (0.021)	0.016 (0.021)
관측값	3,985	3,985
R-squared	0.016	0.022
통제변수 1	0	0
통제변수 2	X	0
p값	0.539	0.636
평균	0.400	0.40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14〉 외국인 특성별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인구규모)

변수명	(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2)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3) 저숙련 생산기능직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4) 저숙련 생산기능직	(5) 고숙련 전문기술직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6) 고숙련 전문기술직
과대 추정	0.003 (0.020)	0.005 (0.020)	-0.026 (0.018)	-0.024 (0.018)	-0.052** (0.023)	-0.040* (0.023)
과소 추정	-0.020 (0.019)	-0.019 (0.019)	0.000 (0.018)	-0.000 (0.018)	-0.012 (0.022)	-0.010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39	0.044	0.011	0.017	0.013	0.032
통제변수 1	0	0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X	0
p값	0.152	0.143	0.069	0.096	0.030	0.102
평균	0.282	0.282	0.203	0.203	0.519	0.519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15〉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인구규모)

변수명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2)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3)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4)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과대 추정	-0.021 (0.021)	-0.014 (0.021)	-0.055** (0.022)	-0.044** (0.022)
과소 추정	-0.028 (0.021)	-0.026 (0.021)	-0.019 (0.021)	-0.017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67	0.079	0.018	0.039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722	0.484	0.040	0.113
평균	0.369	0.369	0.351	0.351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16〉 외국인 입국 검문 강화 정책에 대한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인구규모)

변수명	(1)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2)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3) 입국시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 동의 비율	(4) 계정 수집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07 (0.015)	0.009 (0.015)	0.016 (0.022)	0.012 (0.022)
과소 추정	-0.002 (0.014)	-0.000 (0.014)	-0.007 (0.021)	-0.007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9	0.014	0.027	0.033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485	0.463	0.189	0.255
평균	0.877	0.877	0.647	0.647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17〉 이민자의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인구규모)

변수명	(1)	(2)	(3)	(4)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11 (0.021)	-0.003 (0.021)	0.031 (0.022)	0.041* (0.022)
과소 추정	0.007 (0.019)	0.007 (0.019)	0.002 (0.021)	0.004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7	0.019	0.023	0.038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301	0.550	0.107	0.037
평균	0.712	0.712	0.448	0.448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18〉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인구규모)

변수명	(1)	(2)	(3)	(4)	(5)	(6)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 증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22 (0.021)	0.024 (0.021)	0.081*** (0.023)	0.074*** (0.023)	0.039* (0.021)	0.044** (0.022)
과소 추정	0.005 (0.020)	0.005 (0.020)	0.045** (0.022)	0.045** (0.021)	-0.019 (0.021)	-0.018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1	0.013	0.007	0.019	0.014	0.018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290	0.252	0.053	0.118	<0.001	<0.001
평균	0.719	0.719	0.489	0.489	0.660	0.66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4) 외국인 범죄율 인식오류 효과

〈부록 표 19〉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범죄율)

변수명	(1)	(2)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과대 추정	-0.040** (0.021)	-0.039* (0.020)
과소 추정	0.020 (0.022)	0.023 (0.022)
관측값	3,985	3,985
R-squared	0.019	0.026
통제변수 1	0	0
통제변수 2	X	0
p값	<0.001	<0.001
평균	0.400	0.40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0〉 외국인 특성별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범죄율)

변수명	(1)	(2)	(3)	(4)	(5)	(6)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저숙련 생산기능직 외국인	고숙련 전문기술직 외국인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과대 추정	-0.015 (0.018)	-0.014 (0.018)	-0.025 (0.017)	-0.025 (0.017)	-0.021 (0.021)	-0.018 (0.021)
과소 추정	0.014 (0.020)	0.016 (0.020)	0.006 (0.018)	0.006 (0.018)	0.011 (0.022)	0.016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40	0.044	0.011	0.017	0.012	0.032
통제변수 1	0	0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X	0
p값	0.082	0.068	0.030	0.036	0.078	0.058
평균	0.282	0.282	0.203	0.203	0.519	0.519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1〉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범죄율)

변수명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2)	(3)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4)
과대 추정	-0.010 (0.020)	-0.007 (0.020)	-0.021 (0.020)	-0.017 (0.020)
과소 추정	-0.002 (0.021)	0.004 (0.021)	-0.003 (0.021)	0.004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66	0.079	0.016	0.038
통제변수 1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p값	0.645	0.517	0.315	0.217
평균	0.369	0.369	0.351	0.351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2〉 외국인 입국 검문 강화 정책에 대한 선호(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범죄율)

변수명	(1)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2)	(3) 입국시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 동의 비율	(4)
과대 추정	0.043*** (0.014)	0.043*** (0.014)	0.055*** (0.020)	0.052*** (0.020)
과소 추정	-0.005 (0.015)	-0.005 (0.015)	0.023 (0.021)	0.018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3	0.018	0.029	0.035
통제변수 1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p값	<0.001	<0.001	0.059	0.044
평균	0.877	0.877	0.647	0.647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3) 이민자의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범죄율)

변수명	(1)	(2)	(3)	(4)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14 (0.019)	-0.012 (0.019)	-0.006 (0.021)	-0.004 (0.021)
과소 추정	0.016 (0.020)	0.018 (0.020)	0.013 (0.022)	0.017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8	0.020	0.022	0.037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068	0.068	0.306	0.250
평균	0.712	0.712	0.448	0.448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4)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인식오류 변수: 외국인 범죄율)

변수명	(1)	(2)	(3)	(4)	(5)	(6)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 증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74*** (0.019)	0.074*** (0.019)	0.079*** (0.021)	0.076*** (0.021)	0.043** (0.020)	0.043** (0.020)
과소 추정	-0.004 (0.020)	-0.004 (0.020)	0.011 (0.022)	0.006 (0.022)	-0.032 (0.021)	-0.032 (0.021)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8	0.020	0.009	0.022	0.016	0.020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평균	0.719	0.719	0.489	0.489	0.660	0.66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B.2 과소 추정, 과대 추정 컷오프 (0.8A, 1.2A)

〈부록 표 25〉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 : (0.8A, 1.2A))

변수명	(1)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2)
과대 추정	-0.069*** (0.022)	-0.064*** (0.022)
과소 추정	-0.031 (0.024)	-0.025 (0.024)
관측값	3,985	3,985
R-squared	0.018	0.025
통제변수 1	0	0
통제변수 2	X	0
p값	0.036	0.028
평균	0.400	0.40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6〉 외국인 특성별 선호(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 (0.8A, 1.2A))

변수명	(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2)	(3) 저숙련 생산기능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4) 외국인의 고숙련 전문기술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5)	(6)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과대 추정	-0.036* (0.020)	-0.033 (0.020)	-0.068*** (0.019)	-0.065*** (0.019)	-0.068*** (0.022)	-0.059*** (0.022)
과소 추정	-0.026 (0.022)	-0.020 (0.022)	-0.030 (0.020)	-0.027 (0.020)	-0.035 (0.024)	-0.027 (0.024)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40	0.044	0.014	0.020	0.013	0.033
통제변수 1	0	0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X	0
p값	0.530	0.455	0.012	0.011	0.079	0.085
평균	0.282	0.282	0.203	0.203	0.519	0.519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7〉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 {0.8A, 1.2A})

변수명	(1)	(2)	(3)	(4)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과대 추정	-0.038*	-0.033	-0.060***	-0.052***
	(0.021)	(0.021)	(0.021)	(0.021)
과소 추정	-0.023	-0.016	-0.026	-0.016
	(0.023)	(0.023)	(0.023)	(0.023)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67	0.079	0.018	0.039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373	0.320	0.052	0.040
평균	0.369	0.369	0.351	0.351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8〉 외국인 입국 검문 강화 정책에 대한 선호(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 {0.8A, 1.2A})

변수명	(1)	(2)	(3)	(4)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입국시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28*	0.031**	0.070***	0.071***
	(0.015)	(0.015)	(0.021)	(0.021)
과소 추정	-0.007	-0.004	0.031	0.030
	(0.016)	(0.016)	(0.023)	(0.023)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1	0.016	0.030	0.036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004	0.005	0.022	0.021
평균	0.877	0.877	0.647	0.647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29〉 이민자의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 (0.8A, 1.2A))

변수명	(1)	(2)	(3)	(4)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53** (0.020)	-0.047** (0.019)	-0.041* (0.022)	-0.033 (0.022)
과소 추정	-0.013 (0.021)	-0.009 (0.021)	-0.055** (0.024)	-0.046* (0.024)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9	0.021	0.023	0.038
통제변수 1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p값	0.016	0.021	0.448	0.454
평균	0.712	0.712	0.448	0.448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30〉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 (0.8A, 1.2A))

변수명	(1)	(2)	(3)	(4)	(5)	(6)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 증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 증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58*** (0.020)	0.059*** (0.020)	0.101*** (0.022)	0.098*** (0.022)	0.084*** (0.021)	0.089*** (0.021)
과소 추정	-0.011 (0.022)	-0.010 (0.022)	0.031 (0.024)	0.028 (0.024)	-0.009 (0.023)	-0.005 (0.023)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6	0.018	0.011	0.023	0.020	0.024
통제변수 1	O	O	O	O	O	O
통제변수 2	X	O	X	O	X	O
p값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평균	0.719	0.719	0.489	0.489	0.660	0.66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B.3 과소 추정, 과대 추정 컷오프 (0.7A, 1.3A)

〈부록 표 31〉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0.7A, 1.3))

변수명	(1)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2)
과대 추정	-0.075*** (0.028)	-0.073*** (0.028)
과소 추정	-0.040 (0.029)	-0.037 (0.029)
관측값	3,985	3,985
R-squared	0.018	0.025
통제변수 1	0	0
통제변수 2	X	0
p값	0.043	0.035
평균	0.400	0.40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32〉 외국인 특성별 선호(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0.7A, 1.3A))

변수명	(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2)	(3) 저숙련 생산기능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4) 외국인의 고숙련 전문기술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5) 외국인의 전문기술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비율	(6)
과대 추정	-0.038 (0.026)	-0.036 (0.026)	-0.060** (0.024)	-0.061** (0.024)	-0.082*** (0.028)	-0.079*** (0.028)
과소 추정	-0.026 (0.027)	-0.023 (0.027)	-0.020 (0.025)	-0.021 (0.025)	-0.051* (0.029)	-0.050* (0.029)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39	0.044	0.013	0.019	0.013	0.033
통제변수 1	0	0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X	0
p값	0.459	0.388	0.004	0.004	0.072	0.087
평균	0.282	0.282	0.203	0.203	0.519	0.519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33〉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0.7A, 1.3A))

변수명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	(2)	(3)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4)
과대 추정	-0.056** (0.028)	-0.056** (0.028)	-0.069** (0.028)	-0.068** (0.027)
과소 추정	-0.043 (0.029)	-0.041 (0.029)	-0.042 (0.029)	-0.039 (0.028)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67	0.080	0.018	0.039
통제변수 1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p값	0.412	0.385	0.097	0.090
평균	0.369	0.369	0.351	0.351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34〉 외국인 입국 검문 강화 정책에 대한 선호(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0.7A, 1.3A))

변수명	(1)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	(2)	(3) 입국시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 동의 비율	(4)
과대 추정	0.024 (0.019)	0.026 (0.019)	0.057** (0.027)	0.057** (0.027)
과소 추정	-0.018 (0.020)	-0.016 (0.020)	0.014 (0.029)	0.014 (0.029)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2	0.017	0.029	0.035
통제변수 1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p값	<0.001	<0.001	0.009	0.009
평균	0.877	0.877	0.647	0.647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35〉 이민자의 역할에 대한 동의 비율(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0.7A, 1.3A))

변수명	(1)	(2)	(3)	(4)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09 (0.026)	-0.008 (0.026)	-0.062** (0.028)	-0.061** (0.028)
과소 추정	0.039 (0.027)	0.038 (0.027)	-0.080*** (0.029)	-0.079*** (0.029)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09	0.021	0.024	0.039
통제변수 1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p값	0.002	0.003	0.298	0.279
평균	0.712	0.712	0.448	0.448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부록 표 36〉 이민의 부작용에 대한 동의 비율(과소, 과대 추정 컷오프:(0.7A, 1.3A))

변수명	(1)	(2)	(3)	(4)	(5)	(6)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이민자 증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비율	
과대 추정	0.022 (0.025)	0.022 (0.025)	0.104*** (0.028)	0.104*** (0.028)	0.085*** (0.027)	0.086*** (0.027)
과소 추정	-0.047* (0.027)	-0.049* (0.027)	0.033 (0.029)	0.033 (0.029)	-0.003 (0.029)	-0.004 (0.029)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16	0.018	0.010	0.023	0.019	0.023
통제변수 1	0	0	0	0	0	0
통제변수 2	X	0	X	0	X	0
p값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평균	0.719	0.719	0.489	0.489	0.660	0.660

주: 괄호안에 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시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 1(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 수를 통제. 통제변수 2(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 행 변수: 과대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통계량보다 0.75배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Korean Natives' Misperceptions about Immigrants and Their Immigration Policy Preferences*

Chung-Yoon Choi** · Seonghoon Kim*** · Syngjoo Choi****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outh Koreans' misperceptions regarding immigrants and their immigration-related policy preferences by conducting a large-scale online survey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bout 4,000 Korean natives. We find that Korean native respondents have large, negative, and multidimensional misperceptions toward immigrants. For instance, the respondents overestimate the number of foreign immigrants at least twice and the crime rate three times more than the actual statistic. Respondents exhibited most negative misperceptions toward Korean Chinese among other immigrant groups. Biased perceptions on immigrant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Considering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isperceptions and the policy preferences regarding immigrants, public information awareness campaigns could be effective in reducing social conflict caused via reduced misperceptions toward immigrants.

Key Words: immigrants, perception, policy preference

JEL Classification: J15, J61, J71

Received: April 7, 2021. Revised: July 8, 2021. Accepted: July 30, 2021.

* We thank Jongkwan Lee, Inbok Lee and Youngsik Kim for valuable comments. Financial support from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Finance and Economic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gratefully acknowledged. We received the IRB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RB No. 2006/002-013). All errors are our own.

**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e-mail: ccy94@snu.ac.kr

*** Co-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90 Stamford Road, Singapore 178903, Phone: +65 68085465, e-mail: seonghoonkim@smu.edu.sg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Phone: +82-2-880-4109, e-mail: syngjooc@snu.ac.kr